

한우자조금,
한우 쿠킹클래스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생활용품 브랜드인 타파웨어 브랜드와 함께 5월 13일 타파웨어 본사 쿠킹스튜디오에서 “한우 부위별로 즐기는 캐주얼 다이닝” 요리를 주제로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지인과 신청사연을 모집해 선정된 14팀(지인동반 참여 총28명)이 참여해 평상시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우요리를 타파웨어 브랜드의 담당 셰프와 함께 배웠다.

이번 쿠킹클래스의 메뉴는 주제에 맞게 한우의 안심, 앞다리살, 우둔살 부위를 이용한 한우 안심 샐러드와 불고기 덮밥, 코티지 파이였다. 자세한 요리 정보는 한우114(www.hanwoo114.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주얼 다이닝이란 ‘평상시’라는 뜻의 캐주얼(casual)에 ‘정찬’이라는 뜻의 ‘다이닝(dining)’을 결합한 말로 편안한 분위기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식사를 뜻한다.

참가자 중 어머니와 같이 신청한 주부는 “어머니 환갑생신을 맞이해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보낸 추억이 별로 없어 신청하게 됐다”며 “한우요리를 같이 만들면서 우리모녀에게 즐거운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한우 쿠킹클래스를 통해 특별한 날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손쉽게 한우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림으로서 한우 소비촉진 유도 및 한우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돈자조금,
2015 한돈 인증점 97개 업소
신규 인증



▲ 2015년 새롭게 개정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인증점 인증마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4월 30일 2015년도 한돈 인증점 97개 업소를 2015년 신규 인증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규 인증점 모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증을 희망한 190개의 업소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131개소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약 8주간 인증점 협의체 대표자와 한돈 유통홍보위원, 한돈자조금 직원 등 최소 2인이상이 업소를 방문해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현장심사는 ‘돼지고기 구매 관리’, ‘위생 관리’, ‘매장 규모 및 매출’ 등 점검 항목을 강화해 진

행했으며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음식점 96개소와 농가직영식육점 1개소 등 총 97개소가 신규 인증을 받게 됐다.

한편 2015 한돈 인증점 인증 기념식은 5월 26일(화) 12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2015년에 신규로 인증된 인증점 대표와 전국 인증점 협의체 회장단 및 임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관련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돈판매업소'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농가와 소비자, 인증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도부터 인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4년부터 한돈 인증사업 제2도약기를 선언하고 인증점 전체 재점검을 통해 수준 미달 인증점을 정리하고 기존 인증점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인증점 관리 및 인증 심사 기준 강화 등의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돈 인증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신규 인증점이 선정됨에 따라 4월말 현재 전국 한돈 인증점은 음식점 854개소와 농가직영식육점 71개소 등 총 925개소로 확대되었다. 지속적인 인증 신청 문의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도 인증점 모집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우유자조금, '수제 요구르트 제조기' 전달식 개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정렬)는 지

난 5월 26일 선진(총괄사장 이범권)과 '수제 요구르트 제조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안티 밀크운동 및 저 출산율에 따른 우유 소비의 감소, 수입 유제품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농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수제 요구르트 제조기 1,200개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을 총괄한 선진 마케팅실 이익모이사는 "수제 요구르트 제조기 지원은 우유가 음료 섭취만이 아닌 다양한 활용의 형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두루 먹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수제 요구르트 제조기 지원이 국내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1,200개 수제 요구르트 제조기를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계란자조금, 안영기 위원장 재선출



단

제4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에 안영기 위원장이 재선출됐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대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15년 제2차 계란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했다. AI 방역기간임을 감안,

회의장 입구에 소독장치를 설치한 후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출안 등이 논의됐다.

관리위원장 선거에서는 2대와 3대 위원장을 지냈던 안영기 위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이로써 안영기 위원장은 향후 2년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를 더 이끌게 되었다. 대의원회 의장에는 남기훈 대의원, 부의장에는 최광일 대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허준무, 이순기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계란자조금 예산 증액을 위해 추진했던 산란성계 거출금액 변경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계란자조금은 현재 25억 규모의 예산으로는 원활한 사업행정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현재 수당 50원씩 거출하던 자조금을 수당 80원 혹은 100원으로 변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 전체 대의원 66명 중 40명이 참석, 안건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을 못하고 향후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5. 05. 08]

**축산자조금연합,
광고 시작으로 축산 오인지 해소
'신선하고 건강한 우리축산'
TV광고 온에어**

축산자조금연합이 우리 축산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광고를 제작, 공



중파를 시작으로 케이블TV와 극장,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송출한다.

5월 6일부터 공중파 TV에 먼저 온에어 되는 이번 광고는 "신선에너지가 뭐야?"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부부 대화 속에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축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에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안나의 목소리로 등장해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성우 박지윤과 현대자동차 광고 등으로 목소리를 알린 스타 성우 선호제가 부부로 나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축산자조금연합은 캠페인 광고를 시작으로 5월 말에는 정부·유통업계·소비자단체와 함께 더

욱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신선에너지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그 외에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축산 바로알기 순회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신뢰 높은 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우리 식탁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정상은 사무국장은 "신선함과 건강함은 우리축산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이자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인식 속에 그동안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며, "<신선에너지 우리축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우리 축산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동시에 축산업계 또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뉴스 박동신 기자 [2015. 05. 06]

한국국제축산박람회, 7월 3일까지 친환경 & ICT 축산 적용 우수사례 콘테스트 접수

오는 9월 9일(수)부터 12일(토)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에 우리 축산업의 미래 비전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줄 수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특별관>을 선보인다. KISTOCK 2015 추진위원회 이병규 위원장(대한한돈협회장)는 "최근 농축산 식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축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CT 융·복합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집약해 선보일 것"이라며, 박람회를 방문한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박람회에 선보이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특별관>은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환경관리 및 사양관리 부문의 다양한 기자재의 실물 전시는 물론 이를 실제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장 시설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가상농장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ICT 융복합 기술을 통해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농장 경영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직접 국내 굴지의 ICT 전문가의 해설이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농가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 ICT 축산 적용 우수사례 콘테스트>도 함께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친환경, 선진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성공적인 농장 운영 사례를 모아 시상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친환경 : 동물복지·분뇨, 악취저감·Clean축산 ▲ICT : 환경·사양·경영관리 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개인 혹은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콘테스트 참가 접수마감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다음 박람회 사무국 이메일(kistock2015@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02-574-0465)으로 문의하면 된다.